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100년이 지났어도

김 성 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전염병이 퍼져 사람들이 죽어 나가자 학교·극장·상점은 폐쇄되고 모임도 금지되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고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대중교통 이용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심지어 담배 피우려고 마스크 벗는 사람까지 체포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했다. 장례식은 15분 내에 끝내도록 제한되었으며 도시마다 관이 동나고 묘 파는 인부와 장의사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도로에 화학약품이 살포되고 일부 도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 없이는 출입할 수 없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자 자원봉사자와 군의관을 동원했으며 급기야 의과대학 3, 4 학년 과정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병원에 투입해 의료 업무를 맡겼다."

익숙해 보이는 이 장면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100년 전 16억 세계 인구 중 6억 명 감염에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 당시 상황이다. 지금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스페인 독감.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이 정식 명칭이지만 보통 '스페인 독감'으로 부르고 있다. 사실 스페인은 억울하다.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미국 캔자스에서 시작되어 인근 신병 훈련소로 확산된 독감은 1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 파견된 미군을 통해 유럽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전쟁이 한창이던 참전국들은 적국에 이로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 아군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검열을 강화하는 등 독감 관련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였다. 다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에서는 언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스페인에서만 8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자 독감과 그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였다. 여기에 더해 국왕 알폰소 13세까지 감염되면서 스페인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예년 독감과 달리 스페인 독감은 폐렴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걸린 지 2, 3일 만에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았다. 밤늦도록 카드 게임을 같이 한 여성 4명 중 3명이 다음 날 아침에 죽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특이한 건, 젊은 인구의 높은 사망률로 희생자 대부분이 65세 이하였으며 특히 20~45세가 전체 사망자의 60%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차 세계대전 희생자보다 3배나 많아지자 전쟁은 서둘러 매듭지어졌고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 수많은 희생자를 남기고 독감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어느 도시에서 이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였다. 처음엔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그저 중국의 한 도시에서 생긴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한데 교통의 발달과 사람의 이동이 많다 보니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국경을 봉쇄하였지만 이미 한발 늦었다.

100년 만에 다시 겪는 대유행. 워낙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지만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보니 100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동 제한, 모임 금지, 상점 폐쇄, 도시 봉쇄 그리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0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2018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스페인 독감 100주년 기념 구호 '우리는 기억하고 대비한다'(We remember. We prepare)처럼 인류는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격리하여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밝혀냈으며 신속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였다. 음압 병상, 인공호흡기 등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100년 전 같았으면 죽었을 환자도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축적된 의학 기술의 발달 덕분에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항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했다. 이제 코로나19를 물리칠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한다. 일 년간 힘든 날을 견뎌 온 우리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손 씻기,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종교칼럼

어디로 갈거나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언제부터인가 걸망 메고 떠돌던 삶이 기억에서 아스라이 멀어지고 있다.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나의 영혼이 이젠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곳은 물리적 의미를 포함함과 동시에, 물리적 의미보다 확장된 의미로 다가온다.

수도권의 시민들은 거대한 도시 생태계 안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안에서 그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직장도 자주, 사는 아파트도 자주 바뀐다. 한때 '노마드족'이란 말이 유행했지만 크게 보자면 대도시적 삶의 본질을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시골에서 뿌리내리고 살아 보면 수도권의 삶이 왜 유랑형인지 알게 된다.

시골의 주민들은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사회 속에 정주하여 살아가는 까닭에, 개인의 삶과 운명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힘들다. 지역사회 속에서 개인의 익명성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 끼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런 차이가 극명하다.

증심사에 오기 전, 용암사라는 화순의 한적한 절에 있었다. 부임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절 아래 마을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내가 언제까지 용암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용암사가 있는 화순군 한천면은 말 그대로 시골이다. 그곳에 정착된 삶의 방식은 전형적인 정주형이다. 아마도 그분들은 나 역시 자신들처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지역의 신도 분들이나 불교 활동가들이 스님들을 대하는 고정된 생각 중의 하나 역시 "스님들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요즘은 스님들도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고, 어딘가에 속하려고 애를 쓴다. 승가라는 커뮤니티가 쓸 만한 바람막이가 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현격하게 높아진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다. 달랑 숟가락 두개 놓고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요즘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승가 사회도 이런 추세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각박해진 세상 인심의 여파로 절집 인심도 예전 같지 않다. 예전처럼 아무 절이나 가서 하룻밤 신세지는 것은 이젠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걸망 하나 메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려고 해도 핸드폰은 기본이고 교통비, 숙박비 등 비용이 엄청나다. 이런 저런 눈치 보기 싫으면 낡은 중고차라도 마련해서 끌고 다녀야 한다. 좋게 말하자면, 개별 스님들에 대한 종단의 배려, 나쁘게 말하면 통제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사회는 개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현대의 노마드족은 말하자면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간 놀이공원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신나게 노는 아이와 같다. 대도시의 휘황찬란한 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소비하도록 부추긴다. 소비하자면 그만큼 벌어야 하는 법. 이 모든 것은 현대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이니, 현대의 노마드족은 욕망의 감옥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일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홀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 다만 그곳이 가정이나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메가시티로 바뀌었을 뿐이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말하지만, 인생에 목적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여행이기보다 방랑이다. 진정한 방랑자가 되려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한다. 이것저것 가진 것이 많으면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 힘들다. 가벼운 몸은 물질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가능하다. 마음이 가벼우려면 애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애착의 무게, 정이라는 이름의 집착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면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다. 겉으로는 나무처럼 한 곳에 뿌리내리고 살더라도 몸도 마음도 가볍다면 그가 진정한 노마드족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장수 프로그램으로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방랑자의 삶조차 욕망으로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방랑자야말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갈수록 몸도 마음도 무거워져만 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 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백신은 '의심·확인·삭제'

심 광 섭
농협 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48년 설립된 이후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세 차례 뿐인데 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이 속속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변종이 계속 나타나 조기 종식이 어렵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도 이와 같다. 수없이 독하게 변종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완치가 돼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모습까지 유사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7만 2488건 이었으나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보이스 피싱(음성전화 사기)이란 기관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빼낸 개인의 금융 정보를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이다. 코로나19 불안감을 노리고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검찰·경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경우도 있고, 예금을 안전 계좌로 옮겨 주겠다고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금융 회사나 금감원이라며 '○○○ 사무관' 등 가상의 인물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까지 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 시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이 이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에 정해 놓은 계좌로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나 미지정 계좌는 1일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30분간 자동화 기기를 통한 출금·이체가 지연되는 지연 인출·이체 제도 등도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금융·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증정,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 된다. 또한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에는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주면 안 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신속히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백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그 백신의 이름은 '의심, 확인, 삭제'이다.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대출 처리 비용 선입금·저금리 대출 대환·금융 거래 정보 입력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또는 납치 협박을 받거나 가족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파일·이메일이 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 이러한 사기 수법과 예방 백신을 주의 깊게 숙지해 강한 항체를 만들어 놓자. 그리하여 소의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풍요의 소들이 떼로 들어오는 행운의 한 해를 만들자.

社 說

안이한 대처·소통 부족이 무더기 확진 불렀다

대전 IM선교회 관련 국제학교에서 비롯된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비인가 교육 시설인 광주 TCS국제학교에서만 최근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같은 집단 감염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산구 TCS국제학교 관련자들의 집단 활동이 사전에 확인됐지만 해당 지자체들과 교육 당국의 소통 부재로 수백여 명이 감염되는 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건물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가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에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직원 두 명은 북구청 직원 다섯 명과 함께 현장을 방문, 어린이와 어른들 60여 명이 모여 종교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북구청 직원들은 이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TCS국제학교 일원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이 시설을 이용한 123명의 명단까지 확보, 다음날 광주시 교육청에 '비인가 학교 방역 수칙 현장 점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두 명을 광주 TCS국제학교로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도 해당 시설이 비인가 시설로 관리·감독권이 없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약속받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만약 TCS국제학교의 소재지인 광산구에 즉각 통보했더라면 최소한 무더기 확진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두 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첫 신고일(20일)보다 5일이 늦은 25일 광산구에 관련 사실이 통보돼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미 그 당시에는 광주 북구 소재 에이스 TCS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후속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무더기 감염을 막는 지름길은 행정 당국의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대응이다. 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이 두고두고 아쉽다.

교회발 대규모 집단 감염 막을 대책 시급하다

광주 TCS 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 등 종교계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방역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방역 당국의 손발은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한꺼번에 100여 명이 감염을 피하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커녕 확진자 관련 이동 동선 파악과 접촉자 확인에 실패했다. TCS 국제학교 일부 감염자들이 격리 중인 학교 건물 밖으로 오고 가기도 했지만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인 TCS 국제학교의 경우 비인가 교육시설이란 이유로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화를 키웠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TCS 국제학교가 대안학교인지 학원인지 시설 분류조차 하지 못했다. 현황 파악에서도 방역 당국 간에 엇박자를 드러냈다. 광주시는 TCS 국제학교와 같은 비인가 교육시설을 10개로 파악한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20개 정도로 추정할 정도였다.

신천지와 BTJ열방센터에서 보듯이 지난 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주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이번 국제학교 집단 감염도 종교시설이 진원지가 되고 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광주 TCS 국제학교 사태를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 간 협업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범주와 지원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행정가 박지성

2000년대 한국 축구의 아이콘 박지성이 돌아왔다. 그가 선택한 곳은 K리그 최강 '전북 현대'. 그런데 맡은 역할이 뜻밖이다.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가 아니라 어드바이저라는 생소한 자리다. 구단 운영에 대해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행정가가 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드물지만 유럽 리그에서는 스타 선수들이 행정가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박지성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를 이끈 골키퍼 판 데사르가 대표적이다. 그는 은퇴 후 고향 팀이자 네덜란드 프로축구의 명문 아약스에서 마케팅 책임자로 일을 시작해 지금은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성은 2014년 선수 생활을 마감한 뒤 영국에서 축구 행정을 공부하며 축구 행정가의 꿈을 키워 왔다. 영국의 드몽포르 대학교에서 FIFA 마스터 코스 과정을 밟은 것. 박지성은 전북 현대에서 프로와 유소년의 선수 선발과 육성 및 스카우팅, 그리고 훈련 시스템 제시 등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맨유에서 선수 시절 보고 배웠던 노하우와 유럽 축구의 선진 제도를 접목시켜 K리그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특히 우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유럽의 선수들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키움으로써, 전북의 유소년 팀을 K리그 선수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지성과 함께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도 축구 해설위원에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고향 팀인 K리그 강원 FC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이영표는 "축구가 문화를 넘어 강원 도민의 삶이 되도록 하고 싶다. 재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최상의 경기력을 팬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민 구단 강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 10년 후 홈경기 평균 관중 1만5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같은 시민 구단 광주FC 입장에서 보면 꿈같은 이야기다.

지도자와 행정가의 눈은 다르다. 지도자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선수단 운영과 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새롭게 도전하는 두 축구 행정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K리그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으면 한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